

독서치료 효과 증진을 위한 슈퍼비전 실행 연구

An Action Research of Bibliotherapy Supervision for Improvement of Bibliotherapeutical Effects

임 성 관(Seong-Gwan Lim)*

목 차

- | | |
|--------------|------------------------|
| 1. 서론 | 4. 독서치료 슈퍼비전 실행과 분석 |
| 2. 이론적 배경 | 4.1 슈퍼바이저와의 사전 면담 |
| 2.1 독서치료 | 4.2 1차 슈퍼비전을 통해 얻은 개선점 |
| 2.2 슈퍼비전 | 4.3 2차 슈퍼비전을 통해 얻은 개선점 |
| 3. 연구 방법 | 4.4 3차 슈퍼비전을 통해 얻은 개선점 |
| 3.1 실행 연구 | 4.5 4차 슈퍼비전을 통해 얻은 개선점 |
| 3.2 연구자 | 4.6 5차 슈퍼비전을 통해 얻은 개선점 |
| 3.3 연구 참여자 | 4.7 6차 슈퍼비전을 통해 얻은 개선점 |
| 3.4 연구 절차 | 4.8 슈퍼바이저와의 사후 면담 |
| 3.5 자료 수집 방법 | 4.9 슈퍼바이저로서의 평가 및 반성 |
| 3.6 자료 분석 방법 | 5. 논의 및 의미 고찰 |

초 록

이 연구는 독서치료 슈퍼비전 활동이 치료 효과 증진에 기여를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치료사에게 있어 치료 효과를 거둔다는 것은 단순한 치료 작업 이상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료사들은 치료라는 말이 주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 자신이 실행하고 있는 치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들은 독서치료가 치료로서의 가치를 입증 받지 못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독서치료전문가로 활동하는 연구자에게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시작된 연구가 치료 효과 증진을 위한 독서치료 슈퍼비전 실행 연구이다. 이 연구는 연구 과정에 대한 '방법적' 접근을 강조하여 해석적 실행연구의 형태로 진행을 했다. 연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슈퍼바이저의 문제점을 관찰하고 개선점을 마련함으로써 각 치료들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모두 성장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BSTRACT

The research started with the idea that the proper supervision of bibliotherapy would improve its therapeutic effect. Revealing therapeutical effect is, to therapists more than just therapy process itself. Bibliotherapists, however not only feel the pressure by the term 'therapy' and have a low conviction over self-activating therapy. Therefore, the therapeutic value of bibliotherapy has not been well approved, and the need for improving the situation has grown among bibliotherapists. The bibliotherapy supervising action research was triggered by such need. This research takes the form of interpretive action research which emphasizes a 'methodical' approach to the research process. The purpose is to observe the problems of supervisees, make each session better, and help both the researcher and participants during the research process.

키워드: 치료, 치료 효과, 독서치료, 슈퍼비전, 독서치료 슈퍼비전, 실행 연구

Therapy, Therapeutical Effect, Bibliotherapy, Supervision, Bibliotherapy Supervision, Action Research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휴독서치료연구소 소장(harin75@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2011년 1월 17일 최초심사일자: 2011년 1월 19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1월 31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1): 149-167, 2011. [DOI:10.4275/KSLJIS.2011.45.1.149]

1.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치료법들이 등장하면서 치료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다. 1970년대에 도입된 이래 40년이 넘는 발전과정을 거친 놀이치료를 비롯해 음악치료, 미술치료는 이미 여러 대학원에도 학과가 개설되어 학문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어져 왔다. 또한 신경정신과를 비롯한 여러 임상 현장에서도 그 효과를 인정받으며 활발히 접목되고 있다. 그에 비해 독서치료 및 원예치료, 웃음치료 등은 최근 들어 활성화되고 있는 치료법들이다.

그런데 이처럼 치료법들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이론 강좌를 실시하는 곳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지만,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임상적 검증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몇 가지 이유에 기인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료를 접목해 실시해 보면서 임상적(clinical)으로 검증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 하나의 치료법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임상적 검증은 필수적이다. 특히 정신장애 등으로 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검증은 치료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측면인데, 이에 대한 여건은 이론 강좌가 확산되는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둘째, 치료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한 사람들은 많지만 치료를 직접 실시할 수 있을 만큼의 자질을 갖춘 치료사는 드물다. 치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따라서 그만큼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자격증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치료에 쉽

게 접근하려는 사람들 또한 늘고 있다. 셋째, 치료 작업을 실시하면서 갖게 되는 의구심과 궁금증을 물어보고 사례를 관리 감독해줄 수퍼바이저(supervisor)가 부족하다. 따라서 치료사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치료 작업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갖고 있어, 결국 치료를 해나가기 위해 필요한 자신감과 안정성 또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치료는 발달적(developmental)인 측면 혹은 임상적(clinical)인 측면에 걸쳐 효과가 있어야 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몇 가지 요인들 때문에 아직도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어 사회 전반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이는 독서치료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서치료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수퍼비전을 실시하고, 그 실행 결과에 따라 수퍼바이저는 물론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에도 효과가 있었는지를 우선 살펴보았다. 이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퍼비전을 반복 실행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입증하는 데에도 목적을 두었다.

2. 이론적 배경

2.1 독서치료

일반적으로 독서치료는 참여자가 다양한 문학작품들을 매개로 하여 치료자와 일대일이나 집단으로 토론, 글쓰기, 그림 그리기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의 구체적 활동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적응과 성장 및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

하는데 도움을 얻는 것을 뜻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김현희 외 2004).

독서치료는 동일시(identification), 카타르시스(catharsis), 통찰(insight)의 원리를 바탕으로 실시되는데, 문제 상황을 고려해 처방된 문학작품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동일시를 하게 만든다. 즉 책 속 등장인물의 성격, 감정, 행동, 태도를 자신의 내면에 섭취하여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때 내담자는 등장인물을 따라가면서 내면에 쌓여 있는 욕구 불만이나 심리적 갈등을 발견하고, 발문 및 관련 활동을 통해 치료사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산시키며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 나아가 그동안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지 못했던 자신의 문제를 올바르게 체득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바로 통찰이다. 이처럼 독서치료는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의 원리를 바탕으로 내담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국 독서치료는 내담자가 치료적 효과가 있는 책을 치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독서하게끔 돕는 과정이다(이영식 2006). 따라서 독서치료가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작업이 되기 위해서는 접수면접(interview)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내담자의 문제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면 심리진단검사를 활용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이 되면 그에 따른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각 session별 세부 목표에 따른 자료 선정과 관련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다음 단계에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까지의 준비가 모두 끝나면 적정 치료 환경을 구성한 뒤 치료를 실시하면 된다.

2.2 슈퍼비전

슈퍼비전은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 그리고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담자 간의 독특한 전문적 관계이다. 이 관계는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여감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슈퍼바이지가 점점 유능해짐에 따라 전문적 기술을 수행함에 있어서 슈퍼바이저로부터 방향 제시를 받을 필요가 점차 줄어든다. 유능한 슈퍼비전은 슈퍼바이지에게 전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내담자의 복지를 보호하는 것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유지해 나갈 것을 필요로 한다. 슈퍼바이지가 치료적 실무의 예술과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조력하면서 슈퍼바이저는 내담자들이 제공받고 있는 돌봄의 질을 감독해야 한다. 슈퍼비전의 주요 목적은 슈퍼바이지가 독립적인 전문가가 되는데 필요한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맥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Haynes 외 2006).

따라서 모든 치료사는 자신과 내담자를 위해 슈퍼비전을 받을 필요가 있고, 슈퍼비전을 위한 지침을 갖고 있어야 한다. 독서치료에서는 슈퍼비전 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다룰 필요가 있다.

첫째, 내담자(참여자)의 독서 흥미 및 수준 평가

독서치료에서는 읽기 자료가 주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내담자가 책을 읽거나 관련 활동에 기본적인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문제 유형에 따라 내담자에게 적합한 자료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내담자의 독서 수준을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슈퍼비전에서도 치

료자가 내담자의 독서에 대한 기본 흥미 및 수준을 제대로 파악했는가에 대해 다루어야 한다.

둘째, 내담자의 문제 파악 및 심리검사 평가 의뢰가 되거나 자발적으로 심리 상담 및 치료 상황에 도달한 내담자들은, 주로 호소하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런데 호소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자신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언부언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치료의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을 주어야 하는 치료자로서는 내담자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돕기 위해 내담자의 심리 상태 및 문제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기도 하는데, 슈퍼비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룰 필요가 있겠다. 특히 심리검사의 경우 실시 및 방법 적절성의 여부, 해석의 명확성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셋째, 목적과 목표 설정 및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의 목적은 결국 내담자의 문제 유형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것이겠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세부적인 목표의 수립은 내담자와 함께 결정해야 한다. 가끔 내담자의 의견은 무시한 채 치료자 혼자서 높은 수준의 목적이나 목표를 세워두고 내담자에게 도달할 것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현재 내담자의 여러 부분을 고려해 정한 기간과 프로그램 구성 내용에 따라 도달할 수 있는 목적과 목표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목적과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했는지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넷째, 선정 자료

독서치료에서의 자료는 치료를 돕기 위한 촉매이자 매개체라고 이야기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때문에 자료의 적절성에 대한 부분은 세밀하고도 정확하게 다루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슈퍼바이저 역시 해당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매 회마다 사용한 자료를 다 읽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슈퍼바이저로 하여금 도서류의 경우는 간단한 요약 내용을, 시 등의 자료는 원문을 제시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고 간단한 제목과 형태만으로 자료의 적절성 유무를 판단한 뒤 이루어지는 슈퍼비전은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라 생각된다.

다섯째, 활동

독서치료에서는 책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카타르시스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이후 이루어지는 활동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독서지도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실제 활용되는데, 활동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서부터 구체적인 과정까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여섯째, 반응, 공감, 경청

일반 상담 및 심리 치료에서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반응이나 공감, 경청에 대한 반영은 슈퍼비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이 요소들은 내담자가 상담자로부터 보호와 지지, 격려 등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해, 결과적으로 치료 상황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독서치료 역시 상담 및 심리치

료적인 바탕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깔리게 되므로, 반응과 공감, 경청에 대한 부분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임성관 2007).

3. 연구 방법

3.1 실행 연구

현재의 실행 연구(action research)는 객관성이나 이론 정립에 대한 관심보다 실천의 개선에 관심을 가지며 반성적 실천의 자기순환과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교육현장 뿐만 아니라 실천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한 연구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이용숙 외 2005).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 및 참여자를 만나 치료 작업을 실행하는 독서치료 분야에도 가장 적합한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실행 연구는 매일 매일의 일상사에서 유용한 실천적 지식을 산출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며, 매일의 경험에서 출발하고 체험적 지식의 성장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탐구의 결과뿐 아니라 탐구의 과정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며, 연구 방법이나 형식이 다양하고, 자유롭고 융통성이 있다(김보영 2008). 이런 특성 또한 과정(process)을 중시하고 독서 체험과 치료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독서치료와 매우 닮아 있다.

McCutcheon과 Jung(1990)이 제시한 탐구 패러다임에 따른 실행연구는 실증적, 해석적, 비판적 실행 연구의 세 가지이다. 실증적 실행 연구는 자연과학에서처럼 기존의 이론에서 시

작하여, 가설을 설정, 실험, 통계 처리, 그리고 일반화의 선언으로 연구를 종료하는 과정 속에서 현장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밝히는 연구이다. 해석적 실행 연구는 교사가 일상적인 교실 혹은 학교 장면에서 문제를 느끼고, 스스로 반성하고 지속적인 관찰과 기술을 통하여 교수·학습 과정의 개선을 시도한다. 끝으로, 비판적 실행 연구는 사회나 제도상에 있어서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권력과 통제의 문제에 대한 반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비판적인 의식의 고양과 해방을 모색하려 한다(이용숙 외 2005에서 재인용).

본 연구는 내담자 및 참여자를 위해 계획된 독서치료 프로그램 계획과 실시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찾아, 수퍼비전을 통해 개선해 나감으로써 치료 효과를 늘리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실행 연구 과정에 대한 '방법적' 접근을 강조하며, 연구자의 전문성 신장과 독서치료 장면 개선에 전념하여 자신의 실천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기를 기대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세 가지 실행 연구 방법 중 해석적 실행 연구의 형태로 연구를 진행한다.

3.2 연구자

연구자는 교육대학원에서 사서교육을, 상담심리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현재 일반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2004년 2월부터 독서치료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자는 우리나라에서 전문적인 독서치료사를 키우기 위한 첫 과정이 개설되었을 때부터 이론적인 공부를 시작한 이후, 임상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는 내

담자 및 참여자를 만나 독서치료를 실행하면서 전문가로 성장했다. 그러나 특히 현장 독서치료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치료를 해나가며 겪는 어려움을 묻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점, 따라서 치료 효과가 좋지 못할 때도 있다는 점은 늘 고민이었다. 특히 치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이라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의 어려움은 더욱 컸다.

이에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혹시 내담자를 인터뷰한 내용과 심리진단검사에 대한 평가 분석 작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후 수행되는 프로그램 계획 전반도 잘못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슈퍼바이저를 찾아가 슈퍼비전을 받았다. 그 결과 내담자의 문제를 너무 과소평가한 나머지 프로그램 계획 전반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아가 그 이후에도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슈퍼바이저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고, 그런 노력 끝에 현재는 연구소의 연구원 및 독서치료사 과정 수강생들에게 슈퍼비전을 해주는 입장에 서있다.

이 연구는 실행 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여 슈퍼비전이 필요한 독서치료사의 집단 치료 작업에 연구자가 슈퍼바이저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에 따라 연구자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 운영 일지, 프로그램 진행시의 녹음 자료, 소감문 및 평가 보고서 등을 확보해 객관성을 잃지 않으며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3.3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휴독서치료연구소 소속의 독서치료 분야 연구원으로, 2010년 10월부터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에서 엄마와 아이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집단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분이다. 그녀는 독서치료사로서 집단을 진행하는 것이 처음이라 슈퍼바이저의 관리 감독이 절실히 필요했다.

3.4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치료 효과 증진을 위한 독서치료 슈퍼비전 실시에 대한 실행 연구이다. 슈퍼비전을 실행하면서 치료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연구에 참여하는 슈퍼바이저, 나아가 역시 독서치료전문가이자 슈퍼바이저이기도 한 연구자에 이르기까지 함께 발전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단계별 연구 절차를 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3.5 자료 수집 방법

3.5.1 슈퍼비전을 통한 참여 관찰

참여 관찰은 연구자가 참여자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행위와 말, 상징 뿐 아니라 연구자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느낀 것, 그리고 현장 구성원과의 대화까지도 자료가 된다(이용숙, 김영천 1998). 본 연구에서는 슈퍼비전이라는 약속된 만남을 통해 연구 참여자(슈퍼바이저)를 관찰하고, 더불어 그가 만나고 있는 참여자들 또한 관찰했다.

〈표 1〉 실행 연구 단계별 절차

단계	실행 단계	내용	자료 분석 방법
1단계	슈퍼비전 1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한 슈퍼비전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내용 분석
2단계	슈퍼비전 2	1·2·3 session 진행에 대한 슈퍼비전	1·2·3 session 녹음 자료 및 프로그램 운영 일지 평가
3단계	슈퍼비전 3	4·5·6 session 진행에 대한 슈퍼비전	4·5·6 session 녹음 자료 및 프로그램 운영 일지 평가
4단계	슈퍼비전 4	7·8·9 session 진행에 대한 슈퍼비전	7·8·9 session 녹음 자료 및 프로그램 운영 일지 평가
5단계	슈퍼비전 5	10·11·12 session 진행에 대한 슈퍼비전	10·11·12 session 녹음 자료 및 프로그램 운영 일지 평가
6단계	종합 평가	평가 보고서 작성에 대한 슈퍼비전	평가 보고서 결과 내용 분석

독서치료 슈퍼비전은 슈퍼바이저가 진행을 위해 계획한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세 번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면 한 번 씩 만나서 1시간 30분씩 실시를 했다. 또한 마지막 6단계에서의 슈퍼비전은 프로그램을 마친 뒤 각 참여 가족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평가 보고서를 살펴봤다. 총 12회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어서 슈퍼비전은 총 6회에 걸쳐 실시가 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독서치료를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진행을 마친 뒤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내용을 종합 평가했다.

3.5.2 슈퍼비전을 통한 면담

연구에 참여한 슈퍼바이저는 연구자가 직접 면담을 진행하고, 치료에 참여한 참여자에 대한 면담은 치료를 담당했던 슈퍼바이저가 실시했다.

3.5.3 평가 결과지 수집

연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초의 프로그램

계획서 및 슈퍼비전 후 수정된 프로그램 계획서, 각 세션 별 녹음 자료 및 프로그램 운영 일지, 모든 프로그램 진행을 마친 뒤 각 참여 가족별로 작성한 소감문과 평가 보고서까지 모두 수집을 했다.

3.6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를 확실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고, 올바른 방식으로 정리하려는 시도이다. 즉, 연구 결과를 논의의 여지없이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일이다(Wolcott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에 따른 연구 결과를 이해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3.6.1 연구 결과를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된 것

실행 연구는 연구자 개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해석을 연구자 개인과 연관시키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Mills 2010). 따라서 10년 동안 다양한 치료 장면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여러 내담자 및 참여자들을 만났던 경험에서 얻은 연구자의 지식과 이해에 바탕을 두고 해석하려고 하였다.

3.6.2 이론 참조하기

이론은 “연구 대상인 사회적 환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연구자가 아는데 도움을 주는 분석적이고 해석적인 틀”로서, 이론은 연구자가 자신의 작업을 보다 폭넓은 쟁점과 연결 짓는데 도움을 준다. 또 연구자가 보다 더 높은 추상화의 수준을 탐색하고 단순히 서술에 불과한 설명을 넘어서도록 도와주며, 연구에 논리적 근거가 되기도 하고 혹은 의미를 파악하는 감각을 키워주기도 한다(Mills 2010).

본 연구 자료 가운데 선정 자료에 대한 분석의 틀은 <표 2>와 같다.

4. 독서치료 슈퍼비전 실행과 분석

4.1 슈퍼바이지와와의 사전 면담

슈퍼비전은 철저히 슈퍼바이지를 위한 활동

이어야 한다. 따라서 슈퍼비전을 실시하기 전에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지가 도움 받고 싶어 하는 점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에 걸맞은 슈퍼비전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표 3>은 슈퍼바이지와와의 사전 면담 내용을 양식에 맞춰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4.2 1차 슈퍼비전을 통해 얻은 개선점

첫 번째 슈퍼비전에서는 향후 진행할 집단 독서치료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 살펴보았다. 독서치료 프로그램 계획은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특성을 전제로, 전체 목표와 세부목표에서부터 선정한 자료의 적절성, 나아가 관련 활동의 적절성과 시간 내 마무리 지을 수 있는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 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슈퍼바이지로 하여금 수정을 가한 후 진행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향후 진행될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하겠다. 다음에 제시되는 <표 4>는 슈퍼바이지가 작성한 최초의 프로그램 계획이고, <표 5>는 한 차례 슈퍼비전을 받은 뒤 수정을 가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은 3-40대의 엄마 1명과 8세 아동 1명으로 이루어진 가족 7팀 이내이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표 2> 선정 자료 분석의 틀

주제	문체	기타
보편적 주제	리듬	전체 목표 및 세부 목표
영향력 있는 주제	이미지	나이와 교육수준
이해될 만한 주제	언어	신체 상태
긍정적 주제	복잡성	정신 및 정서적 상태

〈표 3〉 슈퍼바이지 사전 면담 일지

면담 일자	2010년 9월 10일	면담 대상	수퍼바이지 L
면담자	수퍼바이지(임성관)	면담 방법	면 대 면
면담 주제	독서치료 프로그램 슈퍼비전 목표 설정		
면담 내용			
<p>수퍼바이지: 슈퍼비전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고 싶나요? 수퍼바이지: 저는 아시다시피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처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체는 다를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매우 많습니다. 수퍼바이지: 특히 어떤 면들이 걱정되나요? 수퍼바이지: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부터 어려웠어요. 목표를 짜는 것도 어렵고, 자료를 고르는 것, 활동도 시간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 어떤 활동을 몇 개나 해야 될 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알고 있는 내용으로 다 채우기는 했는데 제대로 한 건지도 모르겠고, 또 저걸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할지도 걱정이고... 수퍼바이지: 아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경험이 없어 전반적으로 어렵게 느껴지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수퍼바이지: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도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p>			
면담 정리 및 평가			
<p>수퍼바이지는 초급 독서치료사답게 모든 영역에 걸쳐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우선 프로그램 계획부터 점검을 해서 준비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session별로 시간을 얼마나 안배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한 팁을 줄 필요가 있었다. 그런 다음 진행 후 어려웠던 점을 들어보고, 그 다음 session에서는 그 부분을 이겨내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했다. 마지막으로 평가 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프로그램 계획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작업에 대해 슈퍼비전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라 파악된다.</p>			

〈표 4〉 최초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계획

프로그램명: 엄마랑 아이랑 책읽기 프로그램			
전체 목표: 엄마랑 아이의 상호작용 키우기			
세션	세부 목표	선정 자료	관련 활동
1	오리엔테이션	〈도서: 우리 가족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약속 지키기 서명, 우리 가족 소개하기
2	우리 엄마 문제 짚어보기	〈도서: 고향쟁이 엄마〉	우리 엄마의 문제점 쓰기
3	우리 아이 문제 짚어보기	〈도서: 안 돼, 테이빳!〉	우리 아이의 문제점 쓰기
4	우리 엄마 문제 해결하기	〈도서: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5	우리 아이 문제 해결하기	〈도서: 버릇없는 친구는 싫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6	상호작용 증진 1	〈도서: 아무도 펼쳐보지 않은 책〉	기본 책 만들어 이야기 입히기
7	상호작용 증진 2	〈도서: 까만 크레파스〉	난화 상호 이야기 만들기
8	상호작용 증진 3	〈도서: 엄마, 화내지마〉	올바른 경청법 익히기
9	상호작용 증진 4	〈동시: 말이 안 통해〉	올바른 대화법 익히기
10	서로의 소중함 표현하기	〈도서: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사랑의 편지 쓰기
11	함께 이루고 싶은 목표 정하기	〈도서: 노엘의 산책〉	우리들의 목표
12	소감 나누기 및 종결	〈도서: 아들이, 아빠가 잠시 잊고 있었다〉	평가 및 종결

〈표 5〉 수정 후 독서치료 프로그램 계획

프로그램명: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상호작용 증진 독서치료 프로그램			
<p>전체 목표: 엄마와 아이는 1차적인 관계로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것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따라 두 사람의 관계는 물론이고 향후 아이가 만나는 사회와의 관계가 결정됩니다. 그러니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지요.</p> <p>그러나 서로의 성격유형이 달라서, 혹은 부모님이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서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에 이 프로그램은 한 가족 내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 엄마와 아이를 대상으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 나아가 보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p>			
세션	세부 목표	선정 자료	관련 활동
1	놀이터 이용방법 배우기	〈도서: 아빠, 엄마, 아누크 그리고 나〉	오리엔테이션, 약속 지키기 서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서로에게 바라는 점 규칙으로 만들기
2	1단계: 서로에 대한 인식도 확인	〈도서: 우리 엄마〉 〈영상: 귀여워〉	특기와 장단점으로 수식한 우리 엄마 우리 아이
3	2단계: 서로에 대한 관심도 측정	〈도서: 고양이 된 하루코〉	우리 엄마·우리 아이 찾기 게임
4	3단계: 애착형성과 분리불안	〈도서: 엄마 엄마 엄마!〉	장님과 택시기사 게임
5	4단계: 서로에 대한 감정 노출 1	〈도서: 눈물바다〉 〈동시: 어른들의 거짓말〉	우리 엄마를 화나게 하는 방법, 난~ ○○했을 뿐이고!
6	5단계: 서로에 대한 감정 노출 2	〈도서: 5분만 쉬고 싶은 덩치 부인〉	엄마도 이럴 때 화가 나!, Would U Please~ ○○해줄래?
7	6단계: 서로에 대한 감정 해결	〈도서: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 〈도서: 아들이, 아빠가 잠이 있고 있었다〉	서로에게 주는 금별·젓빛 스티커, 날려 버린 종이비행기
8	7단계: 긍정적인 상호작용 1	〈도서: 아무도 펼쳐보지 않은 책〉	기본 책 만들어 이야기 입히기
9	8단계: 긍정적인 상호작용 2	〈도서: 엄마, 화내지마〉 〈동시: 말이 안 통해〉	올바른 경청법과 대화법 (상대방의 말 중복하기 실습)
10	9단계: 친밀과 정서적 안정	〈도서: 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도서: 주머니 속의 선물〉	엄마에게 사랑의 편지 쓰기, 엄마가 달아주고 싶은 주머니 담기
11	10단계: 부모 교육	〈도서: 너 왜 울어?〉 〈도서: 어린이〉	부모로서의 내 모습 점검하기
12	놀이터 빠져 나가기	〈도서: 우리 아이 마음 채워줄 책 한 권〉	참여 가족 평가 모임, 종결

의 특성상 참여자들을 선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참여자들 스스로가 어떤 목표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인지 정확히 판별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지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명과 전체 목표가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는데, 이 계획에서는 전체 목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하도록 했다. 이어서 구성

부분을 살펴보면 12 session에 맞게 완성을 해낸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다. 특히 세부 목표의 흐름은 잘 잡은 편인데, 어떤 session에서는 엄마와 아이 양쪽 모두가 아닌 한 쪽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외되는 참여자가 발생하는 한계가 보였다. 따라서 하나의 주제로 양쪽 모두가 참여를 하며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그에 따라 선정 자료는 적절히 바꾸어 줄 필요가 있고, 더불어 관련 활동의 대부분이 활동지를 채운 뒤 발표를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도 아동 참여자들을 고려해 보다 역동적인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참여 아동들의 연령이 초등 1학년이기 때문에 글로써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를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게임이나 움직임이 있는 활동, 미술 작업 등의 표현에 더 비중을 두는 것도 괜찮다. 다음에 제시되는 표는 이런 슈퍼비전 내용을 반영해 수정을 가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계획이다.

4.3 2차 슈퍼비전을 통해 얻은 개선점

2차 슈퍼비전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녹음 자료와 각 세션별 프로그램 운영 일지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치료사의 잘못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함은 물론이고, 참여자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3세션까지는 치료의 초기 단계이므로 치료사와 참여자간, 참여자와 참여자 간에 라포 형성이 잘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도 평가 요소로 삼았다. 다음에 제시되는 <표 6>은 슈퍼바이저가 작성한 프로그램 운영일지이고, 이어지는 내용은 슈퍼비전을 통한 피드백이다.

이 일지는 1 session에 대한 기록이다. 출석한 팀의 숫자에서부터 치료사의 코멘트, 향후 프로그램과 필요한 자료, 각 가족별 특징 및 참여 모습까지 충실하게 작성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아쉬운 점이라면 세부 목표에 비추어 봤을 때 각 가족들이 이루어낸 것은 어떤 점이고 아

<표 6> 독서치료 프로그램 일지

2010년 10월 9일 토요일			
정 원	현 원	출석인원	누 계
7팀	4팀	3팀	3팀
프로그램명	엄마와 아이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내용	오리엔테이션, 참여 목적은 무엇인가?, 독서치료란 무엇인가?		
치료사 코멘트	세 명의 어머니 모두 독서치료라는 말조차 잘 모르는 상태였다. 강좌 신청도 단순하게 책을 다양하게 읽히는 프로그램으로 안 경우가 두 명이나 되었으며 막상 시작하고 나니, 프로그램이 아이와의 관계를 개선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놀라웠으며 엄마로서 아이의 생각을 읽지 못한 것에 대하여 놀람과 알게 되는 것에 대한 안도감과 즐거움과 기대를 갖게 되는 것 같았다. 문학작품을 통한 독서치료란 것에 관심이 많아지며, 어떻게 책을 읽힐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이 많았다.		
차기 프로그램	서로의 욕구 탐색		
차기 준비물	네 맘은 그래도~ 엄마 맘은 그래도 난 이런 게 좋아. 프린트지(엄마 아이 욕구 탐색지)		

참여 가족	Progress Notes
○○네 가족	참여목적 나누기에서 ○○ 엄마는 독서치료강좌인 줄 모르고 부모와 함께 하는 건지도 모르고 신청했으나, 막상 시작하고 보니 아이와 엄마에게 서로를 인식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지난 주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가 엄마와 함께 하는 시간이 정말 좋았다고 엄마는 다음 시간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고 한다. ○○ 엄마는 독서치료에 관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경청하는 모습 보여주었다. 다음 주에는 오래전에 미리 약속된 것이 있어서 불참하게 된다고 하는데 빠지는 시간에 대해 무척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네 가족	☆☆이가 동생 없이 엄마와 함께 하는 시간을 너무 좋아했고, 특히 엄마가 느린 거북이라 지어주었던 이름 때문에 많이 속상해해서 토끼 대신 '날쌔돌이'로 이름을 바꾸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는 평상시에 엄마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이 행복해했다고 한다. 책을 통하여 어떻게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발문법을 알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었다. 의사소통이 안 되니 함께 살면서 서로 그리워 눈물 나는 모녀임을 알게 되었다. 자주 지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아이에게 투사하고 있음을 발견하다.
◇◇네 가족	아이를 데리고 왔다. 셋 중에 가장 온화해보이고, 말 수가 적으나 궁금한 것은 많은 내성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책을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책을 통하여 마음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에 큰 관심을 나타내 보였다. 특히, ◇◇이가 학교에서 있는 없는지 모르는 그림 같은 존재라는 말은 답임으로 듣고 몹시 속상한 시점이며, 내성적이고 말이 많지 않은 아이의 속마음을 책을 통하여 읽을 수 있으며, 서로 소통할 수 있음에 대하여 희망을 품었다.
□□네 가족	불참하다. 도서관에는 작은 아이 때문에 못 온다고 했으나 직접 전화해 본 결과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가느라고 못 왔다고 한다. 다음 주에도 시골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불참하게 된다고 한다. 자신은 직장인이기에 아이가 자신에게 집착하는 면이 있으며 그래서 아빠가 아이를 많이 돌보게 된다고 반복하여 말하였다. 웬지 지난주에 아이가 엄마에 대해 결핍을 느낀다고 말한 것이 □□ 엄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직 부족해 보이는 점은 어떤 것인지, 부족한 부분에서는 어떤 상호작용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지, 혹은 부모나 아이의 성격이나 태도에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섬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다. 즉 치료사는 참여자들이 써서 발표하는 활동지의 내용이라는 현상에 따라 서만 분석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이 발표되기까지 보이는 상호작용 행동이 어떤지, 나누기를 할 때의 태도는 어떤지 등을 모두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아직 그런 눈을 갖추고 있지 못한 인상이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일지는 공식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만을 올바른 표현으로 정리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4.4 3차 슈퍼비전을 통해 얻은 개선점

3차 슈퍼비전은 어느덧 프로그램이 중반기로 접어든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주가 된 내용은 참여자들과 라포(rapport)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그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했다. 슈퍼비전을 위해 녹음 자료를 함께 들어본 것은 물론, 슈퍼바이저로 하여금 한 세션의 축어록을 풀어 오게 해서 세부적으로 행한 발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결과 슈퍼바이저는 발문법의 흐름을 제대로 적용시키고 있지 못했다. 독서치료에서의 발문은 동일시-카

타르시스-통찰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 다음,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측면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동일시 측면에서의 발문 이후 내 삶 적용을 위한 발문으로 서둘러 넘어가는 등 흐름을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보자면 『5분만 쉬고 싶은 덩치 부인』이라는 책을 읽고 행한 발문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장면은 어디였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덩치 부인과 같았던 적이 있나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셨나요?”와 같은 식이다. 이 발문을 흐름에 따라 바꾼다면 다음과 같다.

동일시를 위한 발문은 “어느 장면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카타르시스를 위한 발문은 “편하게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덩치 부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만약 그 입장이었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통찰을 위한 발문은 “혹시 이 이야기를 읽고 깨달은 점이 있습니까? 내 생각이 달라진 부분도 있나요?”

내 삶 적용을 위한 발문은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셨나요?”

4.5 4차 슈퍼비전을 통해 얻은 개선점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해본 경험이 적은 치료사들은 활동을 적절하게 운영하지 못한다. 즉 참여자들이 흥미를 갖고 열심히 임한다 싶은 활동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반면, 스스로가 자신이 없거나 참여자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워하는 활동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여

기는 것이다. 물론 어떤 세션에는 한 가지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이야기를 이끌어 내며 유지해 나갈 수 있기도 하지만, 만약 준비한 활동 모두에 참여자들이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4차 슈퍼비전에서는 그동안 관련 활동을 어떻게 운영해 왔는가는 물론, 이후 세션에 들어가 있는 활동들은 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다루었다. 슈퍼비전을 위해 활용한 자료는 참여자들이 작성한 활동지와 뒷 세션에서 활용할 활동지들, 그리고 녹음 자료이며, 이후 세션을 위해 수정이 필요한 활동지는 수정을 가하도록 했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활동지에 대해서는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가 치료사와 참여자가 되어 함께 실습을 해보기도 했다. <표 7>은 7세션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슈퍼바이저가 작성한 활동지이고, <표 8>은 슈퍼비전 이후 수정을 가한 활동지이다.

4.6 5차 슈퍼비전을 통해 얻은 개선점

5차 슈퍼비전은 프로그램 중반부로서 그동안의 프로그램을 종합 정리하고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9세션 때부터는 종결에 대한 예고를 통해 참여자들 스스로가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돕게 했고, 종결 후에는 각 참여 가족별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점도 알렸다.

4.7 6차 슈퍼비전을 통해 얻은 개선점

마지막 6차 슈퍼비전에서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마친 뒤 각 참여 가족들을 대상으

〈표 7〉 7세선 활동지-날려 버린 종이비행기

1.
2.
3.
4.
5.

〈표 8〉 수정된 7세선 활동지

날려 버린 종이비행기!
우리 엄마나 우리 아이에 대해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나 생각, 모습 중에서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멀리 날려 버리고 싶은 것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아래에 차례대로 적어 보세요. 다 적은 뒤에는 발표를 하고 종이비행기로 만들어서 멀리 날려 버릴 것입니다.
1.
2.
3.
4.
5.

로 작성한 평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피드백을 주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또한 치료사로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소감을 들어보고, 더불어 격려와 함께 아직 부족한 부분에 대해 계속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자극을 심어주었다. <표 9>는 슈퍼바이지가 작성한 참여

가족에 대한 평가 보고서이고, <표 10>은 슈퍼비전 후 수정을 가한 것이다.

4.8 슈퍼바이지와 의 사후 면담

사후 면담은 6차 슈퍼비전을 마친 후 바로

<표 9> 평가 보고서

치료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 Therapy Evaluation Report	사례번호: 2010 - 집단
	이 름: ○○○네 가족
	학 력: 초등 1학년
	실시기간: 2010. 10. 9 - 12. 18
<p>세션 별 내용 요약</p> <p>3회: 우리 엄마(아빠) · 아이를 찾기 게임</p> <p>○○도 한 번에, 엄마도 한 번에 서로를 찾았습니다. ○○는 엄마가 입고 오신 트레이닝복의 재질을 통해서, 엄마는 가장 작은 체구인 점을 힌트 삼아 찾았습니다. 뉴코아 백화점에서 부모님이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지 못해 잠깐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p> <p>6회: 엄마(아빠)를 화나게 하는 열 가지 방법, 엄마(아빠)도 이럴 때 화가 나 활동</p> <p>○○가 엄마를 화나게 하는 방법은 불량식품(과자 등) 먹고 싶다고 떼를 쓰기, 늦게 일어나기, 게임만 하거나 텔레비전만 계속 보기, 교회에 안 가겠다고 떼쓰기, 치마 입고 싶다고 떼쓰기, 공부는 안 하고 놀기, 못 들은척하기, 컴퓨터 시간 어긋며 더 하기랍니다. 또한 엄마가 화가 날 때는 느리게 행동할 때, 동생이랑 싸울 때, 늦게 자려고 할 때, 뉴스보고 있는데 만화나 드라마 보자고 조를 때,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할 때,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울기만 할 때, 스스로 하지 않으려 할 때 등이랍니다.</p> <p>7회: 서로에게 주는 금별 · 깃빛 스티커 활동</p> <p>가장 먼저 활동에 임했는데 잘 생각이 나지 않았는지 오랜 시간을 소모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엄마는 한두 가지 씩만 이야기 하고 다른 팀에게 기회를 넘겼습니다.</p> <p>요약 및 제언</p> <p>참여 시간이 적어 평가를 내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엄마와의 애착 관계 형성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어릴 때 잃어버린 경험이 있고, 부모님들이 감정 조절을 못하고 화를 내는 경향도 있다는 보고를 통해 불안 요소는 갖고 있을 듯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규칙을 세워 아이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독서치료사 ○○○</p>	

〈표 10〉 슈퍼비전 후 평가 보고서

치료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 Therapy Evaluation Report	사례번호: 2010 - 집단
	이 름: ○○○네 가족
	학 력: 초등 1학년
	실시기간: 2010. 10. 9 - 12, 18
세션 별 내용 요약	
1회: 서로에게 바라는 점 ○○는 엄마에게 바라는 점으로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시켜주었으면 한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바라냐고 물었더니 공부를 하지 않고 노는 것이랍니다. 따라서 ○○는 학습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데 엄마의 강요에 의해 행해지고 있고, 그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엄마는 ○○가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이 가장 예쁘기 때문이리는데, 엄마의 의지가 워낙 강하게 느껴져 ○○의 바람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2회: 특기와 장점으로 수식한 우리 엄마 우리 아이 엄마는 ○○를 주로 귀엽고 예쁜 단어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는 장난기 가득한 단어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엄마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한 듯한 느낌이고, ○○는 평소의 모습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엄마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려는 시도로 보였습니다.	
3회: 우리 엄마·아이를 찾기 게임 & 4회: 장님과 택시기사 게임 ○○도 한 번에, 엄마도 한 번에 서로를 찾았습니다. ○○는 엄마가 입고 오신 트레이닝복의 재질을 통해서, 엄마는 가장 작은 체구인 점을 힌트 삼아 찾았습니다. 뉴코아 백화점에서 부모님이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지 못해 잠깐 잃어버린 경험이 있답니다. 장님과 택시기사 게임 시에는 ○○이 엄마의 팔에 거의 매달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불안이 크다는 증거로 보였습니다.	
5회: 우리 엄마를 화나게 하는 방법, 6회: 엄마도 이럴 때 화가 나 ○○가 엄마를 화나게 하는 방법은 불량식품(과자 등) 먹고 싶다고 떼를 쓰기, 늦게 일어나기, 게임만 하거나 텔레비전만 계속 보기, 교화에 안 가겠다고 떼쓰기, 치마 입고 싶다고 떼쓰기, 공부는 안 하고 놀기, 못 들은척하기, 컴퓨터 시간 어긋며 더 하기랍니다. 또한 엄마가 화가 날 때는 느리게 행동할 때, 동생이랑 싸울 때, 늦게 자려고 할 때, 뉴스보고 있는데 만화나 드라마 보자고 조를 때,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할 때, 적극적으로 못한 모습을 볼 때, 울기만 할 때, 스스로 하지 않으려 할 때 등이랍니다.	
7회: 서로에게 주는 금별·젯빛 스티커 활동 가장 먼저 활동에 임했는데 잘 생각이 나지 않았는지 오랜 시간을 소모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엄마는 한두 가지 씩만 이야기 하고 다른 팀에게 기회를 넘겼습니다.	
8회~10회 모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려는 모습이었으며, 특히 엄마는 ○○의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해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요약 및 제언 참여 시간이 적어 평가를 내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엄마와의 애착 관계 형성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어릴 때 잃어버린 경험이 있고, 부모님들이 감정 조절을 못하고 화를 내는 경향도 있다는 보고를 통해 불안 요소는 갖고 있을 듯 싶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규칙을 세워 아이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독서치료사 ○○○	

실시했으며, 내용은 주로 슈퍼비전을 받으며 프로그램을 진행한 소감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표 11>은 슈퍼바이저와의 사후 면담 내용을 양식에 맞춰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로서의 평가 및 반성을 양식에 맞춰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5. 논의 및 의미 고찰

4.9 슈퍼바이저로서의 평가 및 반성

슈퍼비전은 슈퍼바이지만이 아닌 슈퍼바이저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활동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한 슈퍼비전 활동 역시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었는데, <표 12>는 슈퍼바이저

치료 작업에서의 슈퍼비전은 여러 목적에 의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과정 중 하나이다. 하지만 사례를 정리하고 많은 비용과 시간을 지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적정 슈퍼바이저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수

<표 11> 슈퍼바이저 사후 면담 일지

면담 일자	2010년 12월 24일	면담 대상	슈퍼바이저 L
면담자	슈퍼바이저(임성관)	면담 방법	면 대 면
면담 주제	슈퍼비전 경험에 대한 소감		
면담 내용			
슈퍼바이저: 슈퍼비전을 받아보니 어땠던가요?	슈퍼바이저: 프로그램을 계획하면서, 막상 현장에 가서 진행을 하면서도 걱정이 많았는데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슈퍼바이저: 슈퍼비전을 통해 도움 받은 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슈퍼바이저: 전부 다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도움 된 점을 꼽으라면 이미 진행해본 경험이 있으셔서인지 마치 현장을 보고 있는 것처럼 자세히 운영 순서나 주의할 점들을 설명해 주신 점이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가보니 실제로 그런 점들이 많아서 놀라기도 했고요.		
슈퍼바이저: 그럼 혹시 아쉬웠던 점은 없나요?	슈퍼바이저: 제가 너무 모르는 것이 많은 점이 아쉬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좋은 경험을 했으니 다음에는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슈퍼바이저: 슈퍼비전에서의 아쉬움은 없었나요?	슈퍼바이저: 네, 매 session마다 받았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슈퍼바이저: 그럼 독서치료사로서 슈퍼비전을 받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슈퍼바이저: 치료를 잘 하려면 슈퍼비전은 반드시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슈퍼비전의 목적이 치료사를 성장시키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을 지키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만약 슈퍼비전을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상상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 프로그램을 할 때에도 또 슈퍼비전을 받으려고 생각중입니다.		
면담 정리 및 평가			
슈퍼바이저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처음 진행하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슈퍼비전이 절실한 상황이었기에 슈퍼바이저와의 만남만으로도 심적인 불안을 덜 수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session별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들을 실제적으로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참여자들을 심도 있게 관찰하지는 못했지만 운영은 비교적 무난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슈퍼비전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의존은 조금 독서치료사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라 평가된다.			

〈표 12〉 슈퍼비전 평가 일지

수퍼비전 회차	제36차	수퍼바이지	○○○
프로그램명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상호작용 증진 독서치료 프로그램		
수퍼비전 기간 및 횟수(면담 포함)	2010. 9. 10 - 2010. 12. 24, 총 8회		
수퍼비전 전체 평가			
<p>나는 그동안 수퍼바이저로서 수퍼바이지들을 만나면서, 수퍼비전이야말로 치료사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왜냐하면 수퍼비전을 수행하면서, 또 하고 난 뒤에 수퍼바이지였던 치료사들이 프로그램 계획과 운영에 도움을 받아 자신감을 갖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수퍼비전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다행히 그 목표는 이루어진 것 같다. 다만 아쉬웠던 점이라면 수퍼바이지만의 능력을 찾아내 그 면모를 십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야 하는데, 수퍼바이지가 프로그램 운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해 높은 불안감을 갖고 있었기에 마치 내가 진행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라는 지시만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들을 가능한 보호하기 위한 발로였다고 변명할 수도 있는 측면이지만, 수퍼바이지만의 색깔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돕는 데에는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바이다. 따라서 만약 이 수퍼바이저가 같은 프로그램으로 수퍼비전을 다시 받는다면, 그때는 본인만의 색깔을 찾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할 것이다.</p>			

퍼비전 없이 치료를 수행하는 치료사들도 있는데, 이는 치료사 자신을 성장시키고 내담자 및 참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한 축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독서치료 수퍼비전이 치료 효과 증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 연구를 통해 입증해 보았다.

수퍼바이지는 독서치료 프로그램 진행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초급 독서치료사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계획에서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불안감을 갖고 있었기에 수퍼비전을 신청한 것이다. 그런데 사후 면담에서 매 session마다 수퍼비전을 받지 못한 점이 아쉬웠고, 프로그램 계획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수퍼비전을 받을 것이라

고 답했다. 수퍼바이저인 연구자가 평가하기도 이번 수퍼비전은 분명 수퍼바이지의 총체적인 불안감을 해소해 주면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운 면이 있다. 따라서 독서치료 효과 증진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계획과 운영 시 수퍼비전 활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수퍼비전에 따른 치료 효과는 수퍼바이지가 가져온 사례의 내담자 및 참여자 문제 유형, 수퍼바이지의 치료 경험, 수퍼비전 시점 등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수퍼바이저의 이론적 배경 및 현장 치료 경험 등도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결국 효과적인 수퍼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전문적인 만남을 통했을 때에 가능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김현희 외. 2004. 『독서치료』. 서울: 학지사.
- [2] 이영식. 2006. 『독서치료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학지사.
- [3] Haynes 외. 2006. 『(상담 및 조력전문가를 위한) 슈퍼비전의 실제』. 서울: 시그마프레스.
- [4] 이용숙 외. 2005. 『(교육현장 개선과 함께하는) 실행연구방법』. 서울: 학지사.
- [5] 임성관. 2007. 독서치료 슈퍼비전에 관한 연구. 『독서문화연구』, 6: 139-152.
- [6] 김보영. 2008. 『동화 들려주고 토의하기에 대한 실행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7] 이용숙, 김영천. 2005.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방법과 적용』. 서울: 교육과학사.
- [8] McCutcheon, G. & Jung, B. 1990. "Alternative perspectives on action research," *Theory into Practice*, 29(3): 144-150.
- [9] Mills, Geoffrey E. 2010. *Action Research: A Guide for the Teacher Researcher*. 4th ed. NJ: Allyn & Bacon.
- [10] Wolcott, H. F. 1994. *Transforming Qualitative Data: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Thousand Oaks, CA: Sage.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im, Hyun-Hee et al. 2004. *Bibliotherapy*. Seoul: Hakjisa.
- [2] Lee, Young-Sik. 2006. (A) *Short Guide to Bibliotherapy*. Seoul: Hakjisa.
- [3] Haynes, R. et al. 2006. *Clinical Supervision in the Helping Profession: A Practical Guide*. Seoul: Sigma Press.
- [4] Lee, Yong-Sook et al. 2005. *Action Research*. Seoul: Hakjisa.
- [5] Lim, Seung-Gwan. 2007. "A study for bibliotherapy supervision." *Reading Culture Research Institute Journal*, 6: 139-152.
- [6] Kim, Bo-Young. 2008. *An Action Research on Storytelling by the Teacher and the Follow-up Discussion Activities*. M.A.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7] Lee, Yong-Sook & Kim, Young-Chun. 2005.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Method and Application*. Seoul: Kyoyook Kwahaksa.

